

“위대한 국민과 함께해 영광…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 응원”

文 대통령, 퇴임 연설

“5년간 연속적 국가위기 해쳐와 한반도 위기상황 외교국면 전환 남북 대화재개 등 노력 지속돼야 코로나 대처상황보고서 969보 韓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도약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22년 5월 9일까지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며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가장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북 간 평화화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평등동등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다. 세계가 또 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

다”며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며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

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이라며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연구개발) 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

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돌발 변수가 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과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다”며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 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물가·환율 들쭉… 경기 하방위험 확대”

KDI, 5월 경제동향

우크라이나 사태에 공급망 차질 심화 중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물가와 환율이 들쭉이는 등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KDI는 9일 ‘5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대외 여건이 악화해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는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KDI는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제약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극단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며 대외 여건이 악화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은 나타내는 건설기성의 경우 지난 3월 1년 전보다 7.3% 감소했고, 2월(-4.6%)에 비해 감소 폭도 더 커졌다.

설비투자도 3월 6.0%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운송장비에서 같은 기간 9.8%, 자동차 부문에서 12.2% 각각 줄었다.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4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0%로 3월(23.4%)보다 낮아졌다. 무역수지는 2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고, 적자 폭도 커졌다.

KDI는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경기 하방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 4.1%보다 높은 4.8%으로 5%대에 육박했다. 휘발유 등 석유류와 집세,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모두 오른 영향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월 말 1255.9원으로 지난 달 말(1212.1원)보다 43.8원 올랐다.

다만, KDI는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3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고, 같은 달 소매 판매도 2.3% 늘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달 103.2보다 소폭 상승한 103.8을 기록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3월 3.6%에서 4월 11.5%로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KDI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학교·식당 문닫고, 재택근무·영업정지 中 베이징 방역조치 사실상 ‘도시 봉쇄’

● 차이나 뉴스&리포트

코로나 신규감염자 하루 49명에도 PCR검사 도시 늘고 ‘초강수’ 방역 야외공원·지하철역 폐쇄도 늘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멈췄다.

학교와 식당은 기약없이 문을 닫았고, 봉쇄된 구역이 수 백 곳에 달한다. 봉쇄된 영업장이 아니더라도 민생과 관련 없으면 영업은 정지됐고,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거주지가 봉쇄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야외 공원까지 대부분의 시설은 문을 닫았고, 폐쇄되는 지하철역도 늘고 있다. 갈 수 있는 곳도, 이동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강력한 봉쇄 등으로 대표되는 ‘청링(清零·제로코로나)’ 정책은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하이처럼 될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 하루 평균 두 자릿수 확진자에도 방역 조치는 사실상 도시 봉쇄나 다름없다.

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베이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구가 점차 늘고 있지만 감염자 수는 7일(62명)보다 소폭 줄었다. 특히 전일 신규 감염자는 모두 관리통제인원에서 나왔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 바깥인 이른바 ‘사회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단 얘기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배달원이 폐쇄된 세계무역센터 인근 한적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AP·뉴스스

확산세로만 보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베이징시는 초강수라고 할 만큼 방역 조치를 연일 강화 중이다. 상하이 사태를 교훈삼아 가능한 전염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베이징에서 봉쇄된 건물만 벌써 807 곳에 달한다. 차오양구 등 5개 구의 주민은 지난 7일부터 매일 PCR 검사를 해야 하며, 순이구도 8일부터 전수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한일 밀집 지역이 포함된 차오양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통제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 봉쇄통제구역은 구역 봉쇄를 집행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모든 서비스는 문 앞에서 제공된다. 임시관리통제구역은 관리통제구역으로 강화해 PCR 검사 외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인삼미 기자 smahn@

尹, 관저 수리 전까지 자택서 출퇴근

>> 1면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서 계속

대통령 비서실은 3층에 배치된다. 언제든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아래 공간에 비서실을 둔

것이다.

이는 웨스트 윙에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 내각 회의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 주요 참모들 사무실이 수평 형태로 배치

된 미국 백악관과 유사한 구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수리하기 전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동선도 실시간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